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CRYPTO INSIGHT / No.08

중앙화 거래소 · 손실 부담 · 보전 재원과 실제 지급능력

바이낸스 63억 달러 해킹
고객 자산은 누구의 돈으로 보호되는가

SAFU·회사자금·동결 자산·준비금 증명으로 읽는 고객 보호의 실체

63.4억 달러 초과
회사 측 배정 재원 [1]

50억 달러 초과
그중 피해 토큰 보유분 [1]

약 30억 달러
동결액 · 회수 완료 아님 [2]

고객을 먼저 보호하는 재원은 회사와 SAFU다.
보호의 완성은 토큰과 출금 능력의 복원이다.

손실 부담 주체와 자금의 중복을 분리하고, 보전 약속이 고객의 실제 자산 접근으로 연결되는 조건을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0.31

TRADELENS.KR

시장구조·손실 부담·고객자산 보호 분석

01 / RESEARCH VIEW

손실을 떠안는 것과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다르다

TradeLens 판단 | 회사의 선보전, 사후 회수, 출금 정상화를 하나의 경로로 읽는다.

핵심 결론

고객 잔액을 삭감하지 않고 부족분을 메운다면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은 SAFU와 회사의 자기재원**에 남는다. 그러나 자금 배정만으로 고객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보전 재원이 필요한 토큰으로 바뀌고, 안전한 지갑에서 실제 출금되어야 한다. 사고 복구의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이 연결의 실행이다.

누구의 돈인가

피해 자산을 대신 채우는 회사·기금 자원이 첫 부담을 진다. 동결 자산은 돌아온 뒤에야 최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이 부족할 수 있나

같은 달러 평가액도 다른 토큰이면 지급 수량과 맞지 않는다. 매입·체인 이동·승인 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나

SAFU와 회사자금을 중복 계산하거나, 동결액을 당장 출금할 수 있는 준비금에 더하면 보호 능력을 부풀린다.

판단을 바꾸는 증거

고객 수량 보전, 자산별 잔액 대응, 순조로운 출금, 법인·자금 범위가 맞는 공개자료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가 내리는 판단

바이낸스의 전액 부담 방침은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2] 본 보고서는 이를 지급 완료의 증거로 보지도, 출금 중단만으로 지급불능으로 보지도 않는다. **손실 흡수능력·토큰 조달능력·운영 복구능력은 별개의 시험**이다.

독자에게 남길 기준

재원 배정 → 피해 토큰 확보 → 고객 잔액 대응 → 안전한 출금 → 회수에 따른 순손실 감소. 순서가 바뀌거나 같은 돈이 두 번 계산되는지 먼저 본다.

02 / INCIDENT & MEASUREMENT

피해액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센 값이다

사건 시점·공식 공지·추적기관 추정의 범위를 구분한다.

사건 발생
10/29 20:05 UTC
한국 10/30 05:05

초기 대응
권한 차단·조사
피해와 동결액 발표

보전·복구
회사 재원 배정
토큰 매입·출금 준비

다음 증거
사고 후 PoR
기술보고서·실제 출금

발생 시각은 회사의 2차 공지 기준. 이후 단계는 진행 항목이며 모두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다. [1]

자료	피해 추정	자료 성격
Binance · 10월 30일	약 63억 달러	본 보고서 제목과 자금 모형의 기준 [1]
TRM Labs · 10월 29일	약 63.6억 달러	온체인 추적기관의 거래·평가 추정 [7]
Elliptic · 10월 30일	약 64.3억 달러	거래 범위와 평가시점을 명시한 별도 추정 [8]

이 수치는 별개의 피해를 더한 것이 아니다. 달러 환산 시점과 포함 주소·체인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도 다르게 집계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자료의 피해액과 보전액을 짝지어 정확한 부족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초기 설명보다 후속 공지의 범위를 우선한다

초기 공지는 특정 직원 장치의 침해 가능성을 제시했다. 2차 공지는 추가 침해 지점을 언급하면서 전체 경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1] [2] 따라서 원인을 노트북 한 대나 단일 기능의 문제로 좁혀 확정하지 않는다.

금액의 정밀도보다 범위의 일치

이 보고서의 63억 달러는 회사의 근사치다. 추적기관의 소수점이 더 많다고 실제 손실·회수 전망·재원 필요액이 모두 그만큼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03 / FUNDING MAP

63.4·50·30억 달러는 더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전체 재원, 그 안의 토큰, 별도로 동결된 자산을 분리한다.

회사 측 배정 재원 63.4억 달러 초과

그 안에 포함: 피해 토큰 50억 달러 초과

배정 재원의 일부이며 별도의 추가 자금이 아님

별도 상태: 약 30억 달러 동결 · 회수 전

반환·통제권·사용 가능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가용 재원에 합산하지 않음

회사 2차 공지의 근사값. 50억 달러 초과의 토큰은 전체 배정 재원 안에 포함된다. 동결액은 회수 전 별도 상태다. [1] [2]

항목	경제적 의미	피해야 할 계산
배정 재원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회사 측 자원	전체 재원에 그 안의 토큰을 다시 합산
피해 토큰 보유	보전할 자산과 종류를 맞추는 진행 단계	달러 평가액만으로 모든 토큰 수량 충족 판정
동결 자산	공격자의 처분을 막은 회수 후보	동결액 전부를 즉시 사용 가능한 돈으로 간주

회사의 재원 총액과 실제로 배치된 토큰은 자금의 **크기와 형태**라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동결 자산은 여기에 자동으로 더해지는 새 자본이 아니다. 반환이 확정되고 통제권과 사용 가능성이 회복된 후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 차액을 안전마진으로 읽지 않는다

63.4억 달러와 약 63억 달러의 표시상 차이는 확정된 완충자본이 아니다. 재원은 “초과”, 피해는 “약”으로 공표됐고 가격·매입비용·별도 의무도 영향을 준다.

04 / WHO ABSORBS THE LOSS

고객 잔액을 채워도 회사의 손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설명용 자산 이동 모형 | 실제 바이낸스 재무제표나 법적 우선순위가 아니다.

단계	고객 대응 자산	별도 회사 자산	합계
사고 전	1,000	100	1,100
고객 대응 자산 60 탈취	940	100	1,040
회사 자산 60을 보전에 배치	1,000	40	1,040

단위: 임의의 동일 자산 수량. 고객에 대한 의무는 전 단계에서 1,000으로 고정. 세금·비용·기타 채무·회수는 제외한다.

동일한 1,100 단위 기준



자금 이전은 부의 창출이 아니라 손실의 배분이다

고객 대응 자산을 다시 1,000으로 맞추면 고객은 이 모형에서 원금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신 회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10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별도 주머니 사이의 이전을 회사 전체 자산의 증가로 계산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센다.

SAFU가 투입되는 경우에도 기금 자산이 소모되고 향후 보호 여력이 줄 수 있다. 회사의 자기재원과 기금이 어떤 법인·계정에 있었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는 달라지지만, **탈취 손실을 내부 배치만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경제적 원리**는 같다.

고객 보호의 대가는 어디에 남는가

보전 이후의 자기재원 감소, 복구·보안 비용, 기금 재충전 필요가 기업 측 부담이다. 회사의 전액 보전 방침 [2]은 이 부담을 고객 계정 삭감과 구별하는 출발점이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05 / SAFU & CORPORATE RESOURCES

SAFU는 이름보다 가용 자원과 지급 조건을 봐야 한다

제도 설명의 과거 평가액과 이번 사고의 실제 집행을 혼동하지 않는다.

제도상 출발점

2026년 2월 갱신 FAQ는 SAFU의 당시 가치를 약 10억 달러로 설명하고, Nest Clearing and Custody Limited의 관리와 일부 자금의 규제자본 용도를 언급한다. 손실 유형·청구의 적격성과 운용에는 Binance의 재량이 남는다. **이 값은 사고일의 잔액이나 이번 지급액이 아니다.** [3]

질문	분석에서 확인할 것	의미
누가 통제하나	관리 법인·계정·지갑과 집행 권한	브랜드 이름만으로 자원 이동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음
얼마를 쓸 수 있나	가격·담보·제약을 반영한 가용 자원	과거 평가액이나 지갑 시가가 곧 지급 한도는 아님
어떤 손실에 쓰나	일반 기금 규칙과 사고별 보전 약속	이번 약속을 모든 미래 사고의 무제한 보장으로 확장하지 않음
회사의 돈과 겹치나	재원 총액에 SAFU가 포함되는 방식	명칭이 다른 두 금액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음

이번 공지의 총재원과 SAFU·회사자금 각각의 집행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기금의 과거 수치를 빼서 회사의 정확한 부담액을 역산할 수 없다. 규제자본 용도도 즉시 사용 가능 또는 사용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고, 관련 자원의 제약을 따로 본다.

재충전할 여력도 다음 보호 능력을 결정한다

기금을 사용한 뒤에는 현재 사고의 보전과 다음 사고를 감당할 여력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재충전은 회사의 향후 현금과 자본배분을 요구한다. 수수료 수익으로 기금을 쌓았다는 과거 설명만으로 고객 예치금이 손실 재원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비용의 최종 귀속과 재원의 법적 소유는 별도 문제다.

TradeLens 판단

SAFU의 존재는 손실 대응 장치다. 그러나 공적 예금보장과 동일한 법적 권리나 무제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번 고객 보호는 사고별 보전 약속을 이행할 **회사·기금의 자원과 집행**에 달려 있다.

06 / TOKEN MATCHING

달러를 확보하는 것과 같은 코인을 채우는 것은 다르다

피해 토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구간에는 가격·유동성·체인 이동의 부담이 남는다.

회사는 대응 토큰 50억 달러 초과가 마련돼 약 80%를 보전했다고 밝혔다. [1] 50/63=79.4%는 이 설명의 대략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계산이다. 아래에서는 잔여 매입의 가격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13억 달러를 가정 기준값**으로 사용한다. 정확한 미확보액이나 고객 채무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다.

설명용 상황	처음의 준비	가격 10% 상승 후
고객에게 1 BTC 지급 의무	1 BTC를 이미 확보	지급 수량 1 BTC는 그대로 일치
고객에게 1 BTC 지급 의무	매입용 현금 8만 달러만 보유	가격이 8.8만 달러가 되면 0.8만 달러 추가 필요

위 BTC 가격은 설명용 가정이다. 바이낸스의 실제 가격·자산 구성·포지션을 뜻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제외한다.

설명용 미확보 토큰의 재매입 비용



가격 변동률 · 수량 고정 · 수수료 제외

13억 달러 상당의 미확보 토큰 전부가 동일 비율로 재평가된다는 단순 가정. 실제로는 스테이블코인 비중, 자산별 수량·가격·기보유 자원이 달라진다.

시장에서 같은 토큰을 사도 필요한 체인·안전한 보관주소로 옮기는 시간이 든다. 토큰의 거래 유동성이 얕으면 표시가격과 체결원가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총달러 재원과 함께 자산별 수량·가용 네트워크·집행 시점을 보아야 한다.

경제적 의미

가격 위험은 "코인을 보유했는가"보다 "돌려줘야 할 코인과 맞는가"에서 결정된다. 동일 토큰을 충분히 확보하면 달러 가격 변동이 커도 그 토큰 의무에 대한 수량 불일치는 줄어든다.

07 / FREEZE IS NOT RECOVERY

동결은 공격자의 이동을 막는다. 고객에게 반환하지는 않는다

통제권을 멈추는 조치와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나눈다.

동결 이전·처분 제한 > **권리 확인** 반환 대상·청구 검토 > **이전 승인** 법적·거버넌스 절차 > **사용 가능** 복구 지갑·실제 배치

수단·사례	공개된 범위	회수와의 차이
발행사 권한	Circle 약관은 주소 차단·동결과 적법한 명령에 따른 자금 처리를 규정한다. [10]	토큰 통제 기능 자체가 바이낸스 고객에 대한 즉시 지급을 뜻하지 않음
Arbitrum 긴급조치	8,425 ETH와 74,559,805.2 ARB를 별도 주소에 묶고, 이후 이동에 DAO 표결을 요구했다. [9]	확보한 자산에도 후속 거버넌스 절차가 남음
분석기관 집계	Elliptic은 10월 30일 기준 약 28.4억 달러 동결을 집계했으며, 그중 94%가 스테이블코인이다. [8]	회사 집계와 기준이 다르므로 차이를 추가 회수액으로 보지 않음

여러 기관이 같은 주소·토큰을 추적하면 동결 발표가 중복될 수 있다. 또한 DeFi 시장의 신규 거래 중단은 해당 공격자 자산의 압수와 다르다. 회수액에는 반환 권리·관련 채무·실제 이동 가능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반환의 단위와 고객에게 줄 단위를 맞춘다

회수된 자산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토큰과 같으면 해당 수량의 조달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다. 다른 자산으로 돌아오면 교환 비용과 체인 이동이 남는다. 따라서 회수 성과는 달러 표시액 하나보다 실제 반환 수량·자산 종류·배치 시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TradeLens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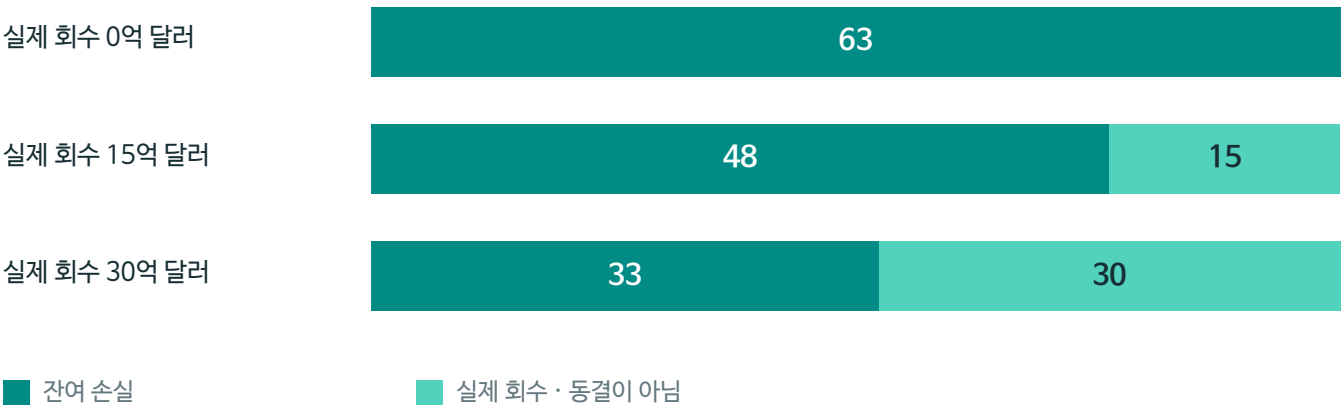
동결은 최종 손실을 줄일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다. 하지만 회수까지의 시간 동안 고객을 먼저 보호하려면 별도 자금이 필요하다. **동결액을 당일 지급 재원에 더하면 이 선보전 부담을 놓친다.**

08 / RECOVERY & ECONOMIC COST

회수는 최종 손실을 줄이지만 선보전 부담을 없애지 않는다

설명용 민감도 | 동일 기준의 손실 63억 달러를 고정하고 실제 회수만 달리한다.

설명용 총손실 63억 달러



단위: 억 달러. 순손실=63−실제 회수. 회수 0·15·30은 설명용 경우이며 예측이 아니다. 동결액을 회수로 확정한 계산이 아니고, 가격 변동·비용·세금은 제외한다.

경제적 항목	영향을 받는 시점	판단 기준
고객 자산 선보전	회수 전에 필요한 자산을 먼저 채울 때	당장 사용 가능한 재원과 토큰 확보
동결 자산 반환	반환이 승인되어 사용 가능해질 때	순회수 수량·비용·관련 의무
운영·보안 재건	사고 직후부터 이후 정상화까지	반복 보안 비용과 추가 통제 투자

같은 금액을 결국 회수하더라도 반환이 늦으면 회사의 선투입 자금은 더 오래 묶인다. 반대로 빠른 반환은 최종 손실뿐 아니라 브리지 자금 수요도 낮출 수 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손실액과 유동성 부담을 같은 숫자로 오해한다.

숫자가 바꾸는 질문

"얼마를 동결했는가" 다음에는 "언제, 어떤 자산이, 어떤 의무를 차감하고 돌아오는가"를 물어야 한다. 30억 달러가 전액 반환된다는 가정에서도 단순 잔여 손실은 33억 달러이며 복구 비용은 별도다.

09 / LIQUIDITY & WITHDRAWALS

100% 자산 대응과 오늘의 출금 능력은 다른 조건이다

지급능력, 단기 유동성, 안전한 처리 시스템을 분리한다.

차원	질문	충분하지 않은 증거
손실 흡수·지급능력	관련 의무를 감당할 자원이 남는가	대규모 지갑 잔액 또는 회사의 한 문장
자산별 유동성	요청 시점에 필요한 토큰을 옮길 수 있는가	달러 환산 총액이나 사후 회수 예상
운영 가용성	복구한 승인·서명 경로가 안전하게 작동하는가	장부상 1:1 비율 또는 일부 체인의 정상 작동

설명용: 의무 100에 동일 자산 100 보유

보유 자산 — 14 — 86 준비 중 · 현재 이전 불가

당일 요청 — 20 — **시간상 공백 = 20 − 14 = 6**

총량의 대응과 지급 시점은 별도 질문이다

설명용: 고객 의무 100, 동일 자산 100 보유, 즉시 이전 가능 14, 준비 중 86, 당일 요청 20. 6의 시간상 공백은 이 가정만으로 순자산 부족을 뜻하지 않는다.

입금이 가능하거나 내부 거래가 계속돼도 외부 지갑으로 자산을 꺼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출금 중단은 보안 통제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산 조달 제약과 겹칠 수도 있다. **중단 사실 하나로 원인을 확정하지 않는다.**

복구의 실질적 지표

토큰·체인별 재개 범위, 요청에서 완료까지의 시간, 누적 미처리 물량, 반복 출금의 성공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일 소액 출금이나 한 번의 스냅샷만으로 모든 고객 의무의 정상화를 판정하지 않는다.

10 / POR DENOMINATOR

준비금 비율이 낮아져도 자산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1월 표시 범위 변경은 사고 전후 비교의 분모를 점검하게 한다.

바이낸스는 1월 7일 PoR 순계정잔액의 범위에 플랫폼 자체 자산을 포함하는 표시 변경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일부 회사 소유 계정잔액이 빠져 비율이 높게 보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변경은 당시의 방법론 공지이며 이번 사고 후 건전성 판정이 아니다. [4]

고객 계정만 분모

120 / 100

120%

자산은 그대로 120

회사 계정까지 분모

120 / (100 + 20)

100%

자산은 그대로 120

표시 범위 변화이지 자산 20의 손실이 아니다

설명용 동일 토큰 수량: 온체인 자산 120, 고객 순잔액 100, 회사 소유 계정잔액 20. 분모에 회사 계정을 포함하면 120/100=120%에서 120/120=100%로 바뀐다. 실제 바이낸스 비율이 아니다.

비교 전 확인 항목	누락 시 생기는 오류
같은 날짜·자산·체인인가	가격 또는 대상 변화가 실제 자산 감소처럼 보임
고객·회사 계정의 범위가 같은가	표시 비율 변화가 손실 또는 증자로 오인됨
마진·대출 계정의 순액 기준이 같은가	총액과 순액을 섞어 고객 지급의무를 과대·과소평가
배정 재원과 준비금이 겹치는가	회사자금이 이미 분자에 있는데 새 보전분으로 다시 더함

TradeLens 해석

사고 후 중요한 것은 비율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다. 동일 범위의 토큰 수량과 고객 의무, 회사 계정, 새로 투입된 자원을 연결하는 명세가 있어야 실제 부족분의 해소를 읽을 수 있다.

11 / WHAT POR CAN ESTABLISH

PoR는 필요한 증거지만 고객 보호의 전체 증명은 아니다

암호학적 포함 증명, 재무 범위와 운영 통제를 구분한다.

Binance의 PoR 체계는 지갑 통제와 시점별 잔액, Merkle Tree·zk-SNARK를 이용한 계정 포함 증명을 설명한다. [5] 계정이 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유용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다른 채무나 자산 제약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점검 대상	PoR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	함께 필요한 자료
고객 계정 포함	내 계정이 공개된 집계에 포함됨	포함 자산·계정 범위와 순액 기준
지갑 잔액·통제	스냅샷 시점의 온체인 수량·통제	사고 후 이동·다른 권리·담보 제약
전체 지급의무	공개 범위의 계정잔액 대응	법인별 기타 채무·차입·보증·우발의무
자산의 지속 가용성	특정 시점의 상태	스냅샷 이후 자산 이동과 실제 출금
보안·운영 통제	잔액 증명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승인·서명·권한 관리의 독립된 검증

PCAOB 투자자옹호실의 일반 유의사항은 PoR가 재무제표 감사와 같지 않고, 부채·차입자산·내부통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2023년의 일반 경고이며 바이낸스에 대한 이번 사건의 위법·지급불능 판정이 아니다. [6]

정적 증거

특정 시점에 어느 자산과 계정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스냅샷을 맞추기 위한 일시적 이동 가능성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적 증거

그 이후 고객의 출금 요청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지 본다. 자산이 실제로 이동해도 남은 의무와 재원 대응이 유지돼야 한다.

공개자료의 조합으로 판단한다

계정 포함 증명 + 자산·의무 범위 + 재원 이동의 설명 + 실제 출금 + 통제 복구가 함께 맞아야 한다. PoR를 무가치하다고 치부하는 것과, 그 하나로 모든 위험을 없앴다고 보는 것 모두 피한다.

12 / SECURITY & RECURRENCE

개인키 비유출과 안전한 출금 승인은 같은 말이 아니다

공격 재현이 아니라, 보전 자산을 다시 잃지 않게 하는 통제의 경제성을 본다.

접근 직원 장치·서비스 권한 > **승인** 정책·역할 분리 > **서명·위임** 허용 거래·권한 범위 > **이동·탐지** 한도·속도·이상 징후

회사 공지는 개인키 유출 증거가 없다는 점과 추가 침해 지점의 조사를 함께 제시한다. [1] 이는 모든 승인 경로가 안전했다는 증명과 다르다. 정상적인 서명이 붙은 거래라도 조직이 의도하지 않은 요청·권한 위임일 수 있다.

근거의 층위	말할 수 있는 것	과도한 해석
회사 조사 [1] [2]	복수 침해 지점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	노트북 하나가 유일한 원인이라고 확정
TRM 분석 [7]	이더리움의 EIP-7702 위임과 다른 체인의 거래 정황	모든 체인의 공격을 동일한 기능으로 설명
EIP-7702 규격 [12]	서명된 승인으로 계정의 코드 위임이 가능함	해당 표준 자체의 암호학적 붕괴라고 단정

고객 자산을 새 지갑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침해된 승인·관리 경로까지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재매입한 토큰이 같은 취약 경로에 노출되면 보전 비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 개선은 기술 부록이 아니라 **손실 흡수 재원을 보존하는 조건**이다.

복구와 재개 사이의 판단

빠른 재개와 안전한 재개의 균형이 필요하다. 역할 분리·권한 회수·이상거래 통제의 개선과 단계별 실제 처리 결과가 함께 제시될수록 보전 약속의 지속성이 강화된다.

13 / LEGAL & ECONOMIC PERIMETER

같은 바이낸스라도 자산의 보관·계약 범위는 나눠 봐야 한다

고객의 계약 상대, 지갑의 통제, 복구 자금의 배치를 같은 범위로 맞춘다.

지역법인 공지가 보여주는 차이

Binance FZE는 자사 고객의 분리보관 지갑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예방적으로 출금을 멈췄다고 밝혔다. [11] 이 사례는 **직접적인 자산 피해와 플랫폼 접근 제한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지역 고객에게 같은 결론을 확대하지 않는다.

구분	경제적 질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고객 계약 상대	어느 법인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가	공통 브랜드를 하나의 법적 채무자로 처리
보관·운영 주체	어느 지갑을 누가 통제하고 운영하는가	지갑 라벨을 최종 법적 소유권으로 단정
보전 자원 소유자	어느 자금이 어떤 제약 없이 이전 가능한가	그룹 전체 자원을 모든 고객에게 즉시 가용하다고 가정
사후 회수 자산	누구의 청구와 절차를 거쳐 반환되는가	회수 재산이 자동으로 고객 추가 보상금이 된다고 가정

고객 계정이 토큰 수량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이 핵심이다. 달러 환산 피해액은 측정을 위한 지표이지 고객마다 동일한 달러 보상액을 확정하는 공식이 아니다. 계약별 권리나 분쟁의 우선순위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 영역이다.

누가 실제 부담을 지는가

회사·기금의 선보전은 원금 손실의 고객 전가를 막는 방향이다. 다만 출금 지연의 유동성 비용, 거래 기회비용, 향후 서비스 조건까지 자동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전의 범위와 고객 경험을 구분한다.

14 / OUTLOOK & MONITORING

보호의 완성은 재원 규모가 아니라 지급의 연속성이다

조건부 전망 | 사건의 최종 결론이나 특정 플랫폼 이용 권고가 아니다.

전개 경로	함께 나타날 증거	경제적 의미
정상화	토큰 확보·계정 대응·출금이 안정되고 통제 개선이 동반	고객 원금 보호, 회사 측 손실 흡수·재건 부담
보전하되 지연	총재원은 제시됐으나 일부 토큰·체인·권리 절차가 지연	회사 선투입 자금이 오래 묶이고 고객 접근 비용 지속
부담 확대	추가 침해·재매입 비용·반환 지연 또는 재원 제약이 확대	추가 가용 자원과 더 긴 정상화 과정 필요

다음 공개자료에서 볼 네 가지

확인 지점	판단을 강화하는 증거	판단을 약화시키는 증거
토큰·계정 명세	동일 자산 수량과 고객 의무가 대응	평가액만 제시, 대상·분모 변화 설명 부족
출금 처리	여러 체인에서 대기량·처리시간 안정	일부 성공만 반복 강조, 미처리 증가
회수·재원	반환된 수량과 투입 재원의 중복 없는 설명	동결과 회수 혼합, 같은 자산 재합산
통제·사후보고서	원인별 개선과 검증 범위가 구체적	재발 또는 권한·승인 경로의 공백 지속

회사 2차 공지는 11월 2일 PoR 결과 공개와 단계적 출금 재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일정을 완료 실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

최종 판단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첫 재원은 회사·SAFU의 손실 흡수이며, 동결 자산 회수는 그 뒤의 순부담을 줄인다. 현재의 핵심 시험은 **약속한 돈이 필요한 토큰으로, 토큰이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출금으로 전환되는가**다. 이 연결이 입증되면 우려가 약해지고, 어느 고리가 막히면 보호의 미완성 구간이 드러난다.

15 / SOURCE REGISTER

사건·재원·준비금의 원문 근거

본문의 청록색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는 같은 원문에 연결된다.

01. Binance | 보안사고 2차 공지

원문 열기

2026.10.30 · 회사 발표·계획 · 피해액, 보전 재원, 토큰 재매입, 출금·PoR 일정

02. Binance | 보안사고 초기 공지

원문 열기

2026.10.30 · 초기 회사 발표 · SAFU·회사자금의 손실 부담 약속, 동결·침해 정황

03. Binance | SAFU 자산보호기금 FAQ

원문 열기

2026.02.02 업데이트 · 제도 설명 · 과거 평가액, 관리 주체, 규제자본 용도와 지급 재량

04. Binance | 준비금 증명 표시 범위 변경

원문 열기

2026.01.07 · 방법론 변경 · 플랫폼 소유 계정잔액의 분모 포함과 비율 해석

05. Binance | 준비금 증명 체계

원문 열기

2026.10.31 기준 · 회사 방법론 · 지갑 통제, 스냅샷, Merkle Tree·zk-SNARK 계정 포함 증명

06. PCAOB Office of the Investor Advocate | 준비금 증명 보고서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원문 열기

2023.03.08 · 일반 유의사항 · PoR와 감사·부채·통제 검증의 차이; 본 사고 판정 아님

자료 성격: 회사 공지는 책임·집행·계획에 대한 회사 설명이다. 제도 FAQ의 과거 값은 이번 사고의 현재 잔액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PCAOB 자료는 일반적인 PoR 유의사항이며 특정 거래소에 대한 사건 판정이 아니다.

본문의 자금 모형은 명시한 범위와 가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비공개 자기자본·계약별 지급의무·SAFU 실제 집행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16 / SOURCE REGISTER

추적·동결·통제 범위의 원문 근거

분석기관의 추정, 거버넌스 조치, 계약과 기술 규격을 구별한다.

07. TRM Labs | 바이낸스 해킹의 온체인 분석

원문 열기

2026.10.29 · 추적기관 분석 · 약 63.6억 달러 추정, 이더리움 권한 위임 정황

08. Elliptic | 바이낸스 탈취·동결 자산 추적

원문 열기

2026.10.30 08:00 UTC 업데이트 · 추적기관 분석 · 약 64.3억 달러 추정, 동결 28.4억 달러·자산 성격

09. Arbitrum | 보안위원회 긴급조치

원문 열기

2026.10.30 · 거버넌스 공지 · ETH·ARB 이동과 동결, 이후 이동에 필요한 DAO 표결

10. Circle | USDC 이용약관

원문 열기

2026.10.31 적용 범위 기준 · 공식 약관 · 비EEA 대상, 주소 차단·동결 및 적법한 명령에 따른 자금 처리

11. Binance FZE | 지역법인 보안사고 공지

원문 열기

2026.10.30 · 지역법인 발표 · 분리보관 지갑의 영향과 예방적 출금 중단 구분

12. Ethereum Improvement Proposals | EIP-7702: 외부소유계정 코드 설정

원문 열기

2024.05.07 작성 · Final 규격 · 기술 규격 · 서명된 권한 위임 기능; 본 사고 원인 확정자료 아님

피해액·동결액은 각 기관의 기준 시점과 거래 범위를 따른다. 서로 다른 집계의 차이를 추가 피해·회수로 단정하지 않는다. 공격 주체에 대한 추적기관의 판단은 회사의 최종 사고 원인 보고서와 구분한다.

USDC 약관과 Binance FZE 공지는 적용 지역·고객 범위를 유지한다. EIP-7702는 기능의 기술 근거로만 사용하며 공격 재현이나 전체 침해 경로의 확정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

17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된 발표, 회사 계획,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0.31 · Binance.com 보안사고와 고객자산 보전. 사건은 10월 29일 20:05 UTC(한국 10월 30일 05:05). 기준 회사 공지는 10월 30일 Update #2다.
단위·범위	1십억 달러=10억 달러. 회사의 약 63억 달러 피해액을 주된 계산 기준으로 사용한다. 달러 평가액·토큰 수량·가용 재원·회수액을 혼합하지 않는다.
계산·가정	5쪽 자산 이전, 7쪽 가격·재매입, 9쪽 회수 민감도, 10쪽 출금 유동성, 11쪽 PoR 분모 모형은 설명용이다. 회사 실적·예측·보상액이 아니다.
자료 성격	회사 재원·보전·재개 일정은 발표된 단계로 표시한다. 추적기관 수치와 법인·약관의 적용 범위를 유지하며 동결을 반환 완료로 보지 않는다.
분석 경계	전체 재무제표 감사·지급능력 보증·고객별 법적 권리 판정이 아니다. 비공개 자본·채무·회수확률을 추정하지 않는다.
제공 범위	시장구조·손실 부담·자산 통제·지급능력 판단 기준. 매수·매도, 시점, 적정·목표가격, 개인별 자문 또는 특정 거래소 이용 권고를 제공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